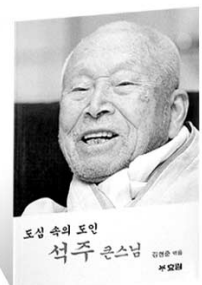


석주 스님 일대기 나는 오로지 만족할 줄 안다



도심 속의 도인 석주 큰스님 김현준 역임 | 호림 | 4천원

석주 스님이 93세 되는 해 어느 날, 법산 스님(동국대 정각원장)이 설날 세배를 드리러 갔다. 법문을 두드리고 살짝 들어섰을 때, 석주 스님은 전등도 켜지 않고 열심히 붓글씨를 쓰고 계셨다.

“스님, 불이라도 밝히시지요.”

“괜찮아요.”

“정월 초하루인데 왜 이렇게 글을 쓰십니까.”

“아, 누가 절을 짓는다고 글씨를 3백 장 써달라는데 아직 반도 못 썼어.”

누군가 포교나 불사를 위해 글씨를

부탁하면 “돈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니 글씨로라도 도움을 주어야 한다”며 ‘붓글씨 불사’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석주 스님. 김현준 불교신학연구원장이 지난해 11월 입적한 석주 스님의 일대기와 수행일화를 책으로 엮었다.

1909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23년 15살의 나이로 출가한 스님은 불교정화운동에 앞장선 것을 비롯해 동국역경원의 전신인 법보원 설립, 세 차례에 걸친 총무원장 역임, 어린이 청소년 포교 등 불교발전을 위한 숭한 발자취를 남겼다.

<도심 속의 도인 석주 큰스님>은 2002년 석주 스님이 직접 들려준 수행담을 출가와 수행행적(1장)한결같은 수행정진, 불교정화와 역경·포교 활동(2장) 중생교화의 세원, 제자들과 신도들에 얽힌 일화(3장) 큰스님의 일화로 나누어 엮었다.

“어머니 생각을 하면 눈시울이 젖어 드는” 효성 깊은 아들의 모습과 아흔이 넘어서까지 손수 빨래를 하며 시자에 게 “내 시봉보다는 공부에 마음을 두라”고 가르치는 자상한 스승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직접 구멍 난 양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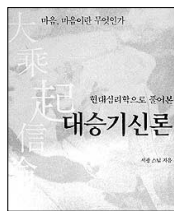
석주 스님이 불자들에게 수만 장도 더 써준 '나는 오로지 만족할 줄 안다'는 뜻의 '오유지족(吾唯知足)'.

을 기워 신고 속옷의 고무줄을 몇 번이나 새로 넣어 입었던 스님의 일화에서 '안과 밖, 시작과 끝이 똑같은 스승'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실감할 수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경전과 만난 심리학 마음공부의 길 찾다

현대심리학으로 풀어본 대승기신론 서광 스님 지음 | 불광출판사 | 8천원



지난해 <알몸이 부처되다> <문제는 항상 부모에게 있다> 등을 출간하며 활발한 집필활동을 펼치고 있는 서광 스님(미국 보스턴 서운사 주지)이 이번에는 <대승기신론>을 '현대심리학'으로 풀어낸다.

왜 '심리학'일까?

우선, 스님이 대학(호성가톨릭대 심리학과)과 대학원(미국 세이브룩 대학원 초차 심리학 박사과정)에서 심리학을 전공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낸다면 첫 번째 의문을 풀 수 있다. 이에 더해 불교와 심리학의 공통점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다룬다는 것이라는데 생각이 미쳤다면, 두 번째 의문도 풀린 셈이다.

<대승기신론>은 마음의 본질과 작용, 그리고 깨달은 마음과 깨닫지 못한 마음에 대한 체계적 설명을 통해 깨달음과 무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마음수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어야 할 소중한 가르침이라 할 수 있다.

<대승기신론>을 현대심리학의 관점에서 풀이함으로써 올바른 깨달음의 길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고귀한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뜻을 알기 어려운 한자어가 일색이라면 일반 불자들에게는 무용지물일 터. 스님은 <대승기신론>의 전통적인 분류체계 대신 내용에 따라 장과 절을 새로 나누어 읽기 편하게 편집했고, 용어도 쉬운 현대어로 바꾸었다.

1장에서는 책의 저술동기와 구성원칙, 대승의 본질과 의미를 설명한다. 2-4장에서는 '마음의 양면성'과 마음이 오염되는 과정, 깨달음과 무지의 정의 등을 보여준다. 5-7장에서는 지관수행, 선과 위빠사나 등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소개한다.

돌에 새겨진 선조들의 지혜



한국의 석조문화 박정근 외 지음, 다룬세상, 1만5천원

2004년 6월, 강원 고성군 건봉사 내 능파교(보물 제1336호)가 보수공사 도중 무너졌다. '백제의 미소'라 불리는 서산마애삼존불(국보 제84호)은 최근 기반부 암석의 균열과 광물질 성분이 녹아내리는 백화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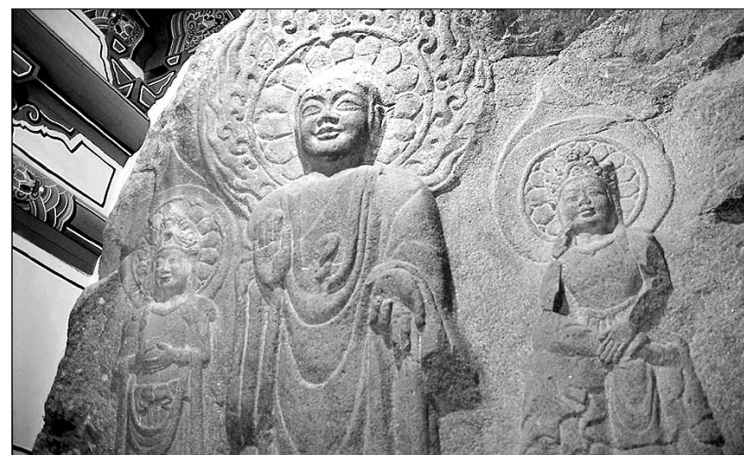
이뿐만 아니다. 부여 정림사터 오층석탑과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 무량사 오층석탑 등도 한국문화재보호회의 석조문화재 조사결과 5등급의 위험 판정을 받았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지난해 12월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대공학이 발달해도 해도 자연의 리듬에 맞추는 노후하는 과거만 못한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토 어디서나 석조문화재를 만날 수 있음에도 왜 '자연의 리듬에 맞춰' 돌을 다루는 솜씨는 제대로

이여지지 못하는 것일까? 혹은 오늘날 사는 우리가 돌과 자연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사찰과 탐문화를 연구하고 있는 소재구 학예연구사는 "오늘날의 과학문명 속에서 우리는 과거 너무나 친숙했던 돌의 문화와 창조적 안목과 기술을 모두 잃어버렸다"

를 다듬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고 있다. 이 책은 2000년 도서출판 다룬세상에서 출간된 <돌의 미를 찾아서>와 <징검다리 건너 석정에 오르다>를 합본해 새롭게 펴낸 것이다.

돌은 때로는 초월적인 상징물로, 때로는 웅장하고 세련된 조형물로, 때로는 아름다운 조각 예술품으로 이 땅 위에



선조들은 강인함과 영원성을 상징하는 돌과 바위에 생명을 불어넣음으로써 우리나라를 '석조미술의 나라'로 만들었다. 사진은 백제 석조미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서산 마애삼존불.

암각화 남근석 돌장승 석불 돌다리 등 석조문화에 담긴 의미·아름다움 설명

며 "하지만 우리 주변에 돌이 존재하는 한 돌의 문화는 계속될 것이며, 돌에 대한 옛 정취를 음미할 수 있다면 앞으로 더욱 성숙된 돌의 미학(美學)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최근 발간된 <한국의 석조문화>는 암각화 남근석 돌장승 석불 석탑 석축 돌다리 고인돌 등 우리 석조문화의 아

해미할 수 없이 많은 작품으로 남겨져 있다. 쓰임새와 모양새는 각기 다르지만 이들 석조문화재 속에는 선조들의 한결같은 삶에 대한 염원이 응결되어 있다.

문자 이전 시대에 살았던 인간들의 원초적 상상력이 펼쳐져 있는 암각화 원초적 남근석 돌장승 석불 석탑 석축 돌다리 고인돌 등 우리 석조문화의 아

담긴 돌장승 등은 생활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반영해 왔다. "원시시대의 산물"로 치부되기 쉬운 고인돌도, 100톤 이상의 돌을 운반하고 세우기 위해 의상소통이 원활하고 지휘체계가 잡힌 조직사회에서 만들어졌음을 생각한다면 결코 간단치 않은 의미가 숨어 있을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석불이나 석탑에는 '불국토'를 염원하는 바람이 담겨 있다.

"석불은 불교적인 것만은 아니다. 거기에는 조성 당시 우리 민족의 의의식과 정서가 담겨 있다. 석불에서 민족의

애환과 슬픔을 느끼게 되는 것은, 진리의 입체적인 석불이 민족의 정신과 자아실현의 과정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선사시대 사람들의 신앙의식을 연구하고 있는 박정근 씨(세종대박물관 특별연구원)와 국립중앙박물관 김중대 박호원 씨, 국립중앙박물관 광동성, 소재구 씨 등 소장자들이 자신의 전공 분야를 맡아 집필했다. 지은이들은 석조문화학을 통해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 살고자 한 우리 조상들의 원초적 생명과 그 생명을 향한 희망의 미학을 발견한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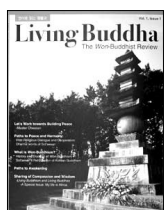
여수령 기자

원불교와 한국 종교를 국내외에 소개하는 연간 영문잡지 <영어로 읽는 원불교-Living Buddha>가 나왔다.

책은 원불교의 역사와 사상, 좌선법, 남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해심 교수의 이야기를 통해 자비와 지혜의 나눔이라는 원불교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와 국제사회에서의 종교의 역할', 1960년대 강원동 목사가 이끈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종교대화운동' 등을

원불교 영문잡지 나왔다

영어로 읽는 원불교-Living Buddha 박광수 지음 | 동아시아 | 9천원



소개함으로써 국내외의 종교계를 국제사회에 소개하는 내용으로 꾸려져 있다. 이 잡지는 국내외의 도서관과 서점 등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2001년까지 한국 종교인평화회의 사무차장으로 일했으며 현재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 평화교육위원장을 맡아 종교간 대화와 협력, 남북종교인 교류 등에 앞장서고 있다.

경기도 사찰답사 가이드북

경기도로 떠나는 사찰기행 2 우리사찰답사회 글/사진 | 문예마당 | 1만2천원



우리사찰답사회가 펴내는 사찰기행 시리즈. 경기도권 두 번째 책. 여강이 감싸 도는 봉미산 자락에 안긴 여주 신록사와 한글 현판인 '큰법당'으로 유명한 남양주 봉선사, 1100년의 세월을

지켜 온 은행나무가 있는 양평 용문사를 소개한다. 풍부한 사진자료와 가람배치, 주변 볼거리, 찾아가는 길 등을 담고 있어 실제 답사에 활용하기 쉽다.

금주의 베스트셀러 10 책방 역시 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웅서	달라이라마	오래된미래
2	오재투지	한 경 해	반디미디어
3	禪 너는 누구나	현대불교신문	여시야 문
4	입보리행문	산티 데 바	하연연꽃
5	한국의 선사들	김진곤 외	우리출판사
6	이편사편 회암경	성법 스님	정신세계원
7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도법 스님	아름다운인원
8	물 속을 걸어가는데	김진태	학고재
9	텐진빠오의 마음공부	텐진빠오	열림원
10	인연법과 마음공부	해국 스님	효림

도서 안내: (02)737-0695

바로보인 환단고기 중국어 고구려사 역역을 과제지다! 용광한 우리의 고대사와 과학도 밝혀주지 못하는 우주탄생의 비밀을 밝혀주는 환단고기. 천강대선사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제제인 선사님께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바로보았다.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주)야단법석과 함께 할... 모집합니다

- 수익사업을 생각하는 사람
- 기금 마련을 하고자 하는 신도와 불교단체
- 신명생활을 하면서 직장을 갖고자 하는 불자

야단법석은...

- 문수사업부 - 행사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 봉축행사, 산사음악회 기획 연출
- 보험사업부 - 다음 생을 위한 범회, 사십구재보험
- 스님은 다비와 사십구재, 신도는 시다림과 사십구재
- 관음사업부 - 범회때마다 음향때문에 고생하셨다면.....
- 2005년 음향 임대 사업 시행
- 지장사업부 - 다비는 스님의 마지막 法門입니다.
- 충남 금산 서대산 일불사, 전북 정읍 용천사 지장 다비장 운영

야단법석 문의: 050-5244-0108

"범회때마다 음향때문에 고생하셨다면..."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히 확장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경쾌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기존의 음향 시스템에서 스피커선 하나만 교체 하셔도 음질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에 드립니다.

주 야단법석은 불기 2549/2005년부터 음향시스템 임대사업을 시작합니다. 이제 예산 때문에 제대로 된 음향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던 주 야단법석의 음향시스템을 임대하여 사용하십시오.

- ▶ 좋은 제품으로 설치 할 수 있습니다. 예산에 맞추다 보면 제품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원하는 시스템을 갖추 수 있습니다.
- ▶ 목돈본다는 일 임대료로... 불사를 하다 보면 소소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부분 음향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여 범회때마다 음향 시스템을 설치하여 범회 때마다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평생 관리를 애드립니다. 설치하고 몇 년 지나면 부품이 없어서 A/S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야단법석은 책임지고 동일한 사양으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야단법석 문의: 050-5844-0108 (관음사업부)

"운명"을 읽고 나면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전3권 완간기념 할인판매 50%

주요수독내용

- ▶ 공황이야기 성기가 말을 안들어요 딸이 미쳐가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래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임신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검사님 임대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 주세요 두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 ▶ 책속 부록 ▶ 생으로 알수 있는 내 몸의 건강 ▶ 성명학-누구나 이름을 지을 수 있다 ▶ 꿈 해몽 비법 ▶ 띠로 보는 궁합 ▶ 달로 보는 궁합 ▶ 시(時)로 보는 궁합 ▶ 팔자로 손(상성) 보는 법 ▶ 삼재법

서울·마포구 아현3동 618-22 전화 (02)365-8172 팩스 (02)365-8173 홈페이지: www.indeenet.co.kr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목(영월)동 374-2번지 전화: 062-266-6693